

Problem Based Learning (PBL) 을 이용한 의상학과 이론수업방식에 관한 고찰⁺

이 승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Problem Based Learning on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course

Lee, SeungHee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BL (Problem based-learning) on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course. Thirty-seven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a 15-week capstone course in a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 Eighty-one percent of the participants were majoring in the clothing and textiles. The study was conducted two focus group interview with 37 undergraduate students.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PBL (Problem Based Learning) in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cour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have more opportunities to practice collaboration within the team and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through the 15 week of teamwork. The participants were developed to express their opinion actively and solving the problem skills. Eighty percent of the instructors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achievement of the course objectives. Seventy-five percent of the instructors expressed the difficulty of student's evaluation. Fifty-five percent of the instructors had a difficulty of development of module problems.

Key Words : PBL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의상사회심리학), Collaboration (협력), Creativity (창의성)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9학년도 교내연구비 (1-0903-0067)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Lee, SeungHee, Tel.+82-2-710-9857, Fax.+82-2-2077-7324
E-mail: leeseu1@sm.ac.kr

I. 서론

지금까지 대학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방법을 연구해 왔다. 21 세기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란,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다¹⁾ 라고 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창조적인 인간형을 대학에서 양성해 주기를 기대하며, 창조적인 리더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한다. 의류 분야의 기업들도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화를 위하여 새로운 인재상으로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로컬화(Localization)가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PBL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수업은 이러한 사회요구와 창조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수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PBL은 전통적인 수업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과 협동학습 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²⁾³⁾

PBL의 시작은 1950년대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의 모색으로 시작 되었다.⁴⁾ 그러나 PBL은 그 후 의과 교육 분야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교육방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⁵⁾ PBL은 실생활의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조화한 교육적 접근으로 학습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기능과 협동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는 학습 형태이다.⁶⁾

Barrows는⁷⁾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넓은 의미의 PBL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방법이다 라고 하였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학생 수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부족한 강의 공간, 학생 대 교수자 비율의 수적인 차이 등 각 대학의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분의 수업이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시행되어 왔고 교수자가 강의 주체가 되어 전공서적을 선정하고 지식전달을 위한 강의를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활용도가 크지 못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하여 학점을 주게 되는 형태로 교수자가 세운 어떤 틀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져 학습자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온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PBL은 일반강의의 수업형태와 달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 수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교수자 또한 수업 시작 전에 수주 전부터 학습운영 계획, 모듈 문제 개발 등의 준비를 해야 하므로 PBL은 교수자의 더 많은 관심과 세부계획이 따라야 하는 수업 형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시작된 PBL 수업의 방식을 의상 학 전공이론 관련 수업에 도입해 봄으로써 교수 자에게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탐험을,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더불어 발표 능력 향상, 더 나아가 팀원 간의 적응 능력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기존의 틀을 탈피해 봄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지니는데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 학습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 쌍방이 윈-윈 (Win-Win) 하는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의류기업에서 요구하는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산, 학이 연계하여 노력을 하고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선행연구

지금까지 의상 학 전공 관련 이론수업에 PBL 방식을 적용한 사례의 연구 논문은 미미하므로 다른 수업과 연관된 PBL 수업 관련 논문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PBL의 특성과 도출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보고자 한다.

Duffy (1997)⁸⁾는 문제중심학습은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맥락적 상황이나 사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화 능력의 학습에 유용한 교수, 학습 모형 중 하나이며, 문제중심학습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하여 제시하고, 설명하며, 나아가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Cordeiro and Campbell (1996)⁹⁾은 PBL의 5가지 특징을 1) 학습의 출발점은 문제이다. 2) 문제는 학생들이 미래의 전문가로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3) 그들이 전문가 훈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지식은 학문이라고 하기 보다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지식이다. 4)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교수-학습에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5) 학습의 대부분은 강의보다도 소집단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16주 동안 31명의 컴퓨터공학 학생들과 전공 컴퓨터 수업을 PBL로 진행한 Dunlap (2005)¹⁰⁾의 PBL 수업과 자아 효능감 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본인들의 업무 수행능력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PBL 수업을 시작 하기 전 실시한 1차 측정에 비해 PBL 수업을 마친 후 실시한 2차 측정 결과에서 자기 조절, 학습 능력, 협동력, 문제 해결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값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¹¹⁾

Honebein, Duffy, and Fishman (1993)¹²⁾은 세 가지 특징을 제안하였는데, 1) 활동은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활동과 부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 이어야 하며, 2) 실제적 환경은 대안적 견해를 일반화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3) 실제 성이 포함된 인지적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고자 한다면 학습자들은 학습 과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Gallagher, Stepien, and Rosenthal (1992)¹³⁾은 PBL 수업이 문제 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참가한 학생들의 문제 발견 능력이 증가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박정환과 우옥희 (1999)¹⁴⁾는 PBL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에서 임의로 선정한 고등학교 4개 학급 164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메타인지 검사를 실시한 후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실험 처리 후 문제 해결 과정 사전검사를 공변인 으로 하여 사후검사를 공변량 분석하였는데,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PBL은 메타인지 하위수준의 학습자보다 상위수준의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Tobin and Tippin (1993)¹⁵⁾은 문제 중심 학습의 강점은 활동이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지적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소규모 집단에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며 토의 등의 사회적 활동으로 과제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III. 수업설계 및 진행방법

1. 수업 설계

의상 학 전공이론 과목의 하나인 의상사회심리학에 PBL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본 수업에서는 한 조당 4-5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15주 동안 (1학기) 3개의 모듈문제를 통하여 토론 및 자료수집, 분석 과정을 거쳐 발표 하게 된다. 각 모듈당 약 3-4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며, 모든 수업은 발표 수업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전공 서적 또한 제한 되어지지 않는다. PBL 수업을 위한 적정 학생 수는 20명 이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발표 수업이므로 4개조의 편성이 학습자들에게 발표 시간 및 발표 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둘째, 인원이 많아질수록 PBL을 적용하는 효과는 감소된다고 보여지며, 셋째, 절대평가가 가능한 인원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세 가지 PBL 참여 학습자의 적정인원에 대한 질적인 면의 고려로 인하여 양적인 연구의 제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상 학 전공이론 수업에 PBL을 적용한 의상사회심리학 수업에는 두 학기 (2008년 1학기-18명, 2009년 1학기-19명) 동안 37명의 학습자들이 수강 하였다. 본 논문은 1년에 한 번 개설되는 관계로 2

년 동안 두 학기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두 학기 동안의 참여 학생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의상 학 전공 81.08% (30명), 8.11% (3명) 어문계열 (영문, 불문, 중문), 시각디자인 5.41%(2명), 그리고 각 경영 2.70% (1명), 수학 2.70% (1명) 이다. 일반강의가 교수자가 정한 전공서적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데 반하여, PBL 수업을 통한 수업은 다양한 전공 서적 뿐 아니라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토론 및 발표 준비를 하게 되므로 더욱 다양한 교육매체와 자원 활용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2. 수업운영 및 수업 진행방식

교수 자는 수업운영안내문을 통하여 수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PBL 방식을 통한 수업의 목표를 설명한다. 교수 자는 의상사회심리학 PBL 수업의 특성을 안내하는 강좌운영이 포함된 강의계획서, PBL 에 대한 소개, 운영에 따른 수업규칙 안내문을 포함한 PBL 수업 운영안내문, 모듈 수와 수업시작, 진행 및 마무리가 포함된 PBL 모듈 별 수업계획안, PBL 문제 및 학습과정계획표가 포함된 모듈 별 PBL 문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4-5주마다 모듈문제를 제시하게 된다.

수업 진행 동안 학습자는 성찰저널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자료와 논거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시도 하였는지, 문제 해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과제를 통하여 이론과 실제의 간격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듈 문제 해결 시 마다 성찰저널을 작성하게 되며, 약 4주에 걸친 토론을 거쳐 그 동안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게 된다. 성찰 저널 작성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은 개개인의 생각, 과정을 통한 경험을 표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학습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3. 과제처리

3개의 모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성찰저널, PBL 동료평가지, PBL 자기평가지, PBL 그룹평가지, PBL 수행보고서와 각 모듈마다의 파워포

인트, 리포트 작성 등을 바탕으로 각 각의 점수가 합산되어 총점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기존 수업방식과의 차이점은 각 모듈 발표 시 마다 동료평가지, 자기 평가지, 그룹 평가지, 교수자 평가지 등의 다양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지게 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수업 진행 결과

의상 학 관련 전공이론인 의상사회심리학 수업에 PBL을 적용하여 진행된 본 수업은 2008년 1학기과 2009년 1학기 두 학기 동안 37명의 학부 학생으로 이루어져 수업이 진행되었다. <표 1>은 PBL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에게 PBL 수업을 시작할 때와 수업을 마칠 때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참가 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35명의 학생이 2회로 나누어진 포커스그룹에 참여 하였다. 포커스그룹의 특성상 참여한 학생들의 언어로 그들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습자들의 표현대로 표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PBL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고, 이러한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어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발표수업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의상사회심리학 PBL 수업을 시작하기 전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 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의상사회심리학 PBL 수업을 마친 후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많은 학습자들이 첫째,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 시킨 점과, 둘째,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 셋째,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 넷째, 팀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긍정 적으로 나타내었다.

<표 2>는 PBL을 적용한 의상사회심리학 수업의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학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좋았던 점은 크게 능동적 학습, 전문지식 습득, 팀워크의 중요성, 피드백, 창의적 수업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필기시험이 아닌 발표 수업으로만 진행되어 평가가 이루어 지다 보니

<표 1> 의상사회심리학 PBL 수업을 시작할 때와 수업을 마친 후 학습자들의 태도 변화

PBL 수업을 시작 하기 전	15주의 PBL 수업을 마친 후
<p>-PBL 수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조모임을 해도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많아 힘들었다.</p> <p>-처음 접하는 수업방식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었기에 별 어려움 없이 단지 수업이 스스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일본 경향이 있었다.</p> <p>-시작했을 때에는 많이 어렵고 뭔가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수업인줄 알았다.</p> <p>-4주마다 발표를 한다는 것의 압박감이 컸고 주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헤쳐나가야 함이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웠다.</p> <p>-다소 적극적으로 못하고 발표하는 것을 꺼려하였다.</p> <p>-PBL 이라는 수업을 처음 들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발표로만 진행된다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했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했습니다.</p> <p>-의상사회심리학 수업을 하기 전에는 PBL 수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수업시간이 막막했다. 그리고 조원들과 처음 보는 사이기 때문에 서로 어색했다.</p> <p>-처음 하는 거라 긴장되었다.</p> <p>-스스로 참여하는 수업보다는 수동적 수업을 하였다.</p> <p>-수업을 시작할 때는 PBL수업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이 안되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점점 오�히려 PBL수업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p>-이론에 맞추어 생각하였다.</p> <p>-스스로 참여하는 수업보다는 수동적 수업을 하였다.</p> <p>-수업을 시작할 때는 PBL수업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이 안되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점점 오�히려 PBL수업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p>-이론에 맞추어 생각하였다.</p> <p>-스스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었다.</p> <p>-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해보려고 조원들과 합의했습니다.</p> <p>-긴장하고 걱정이 된다.</p> <p>-정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었다.</p> <p>-신기했다.</p> <p>-그냥 기말이 없다는 것만으로 좋았다.</p> <p>-모듈문제가 포괄적이어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p>	<p>-PBL 수업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조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해서 좀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다.</p> <p>-모듈문제 3가지를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술,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실질적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절대 만만하게 볼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이다.</p> <p>-문제해결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전문지식을 얻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발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약간 심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수업이 계기로 남 앞에 서는 게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다.</p> <p>-하나의 주제에 대해 포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던 것 같다. 초기 수업시작 당시에 갈려 있던 사고가 조금은 열린듯한 기분이고, 수업발표 준비 하면서 전공서적이란가 논문 등을 자주 뒤적일 수 있는 습관을 들인 것 같아 좋았다.</p> <p>-발표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p> <p>-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발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졌다.</p> <p>-조원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어떤 발표 수업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었기 때문에 1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매시간마다 조원들과 토의를 했다. 첫 번째 모듈이 끝난 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감이 오는 듯 했다. 여러 권의 책을 봄으로써 다양한 이론을 접할 수 있었고 발표에 자신감이 생기고 조원들과 잘 맞아서 PBL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p> <p>-강의 식 수업이 아니라 흥미로웠지만 계속되는 발표수업이 부담스러웠다.</p> <p>-주어진 문제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p> <p>-수업을 마친 후 여러 분야와 의상과의 관계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여러 전공 분야를 접해보고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발표내용의 구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다.</p> <p>-PBL수업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진행방식을 알고 경험해보니 핵심을 잘 알고 초기에 방향만 잘 잡는다면 수월히 해나갈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된다.</p> <p>-시험을 보면 단기적으로 암기했다 쉽게 잊어버리지만 직접 자료를 찾고 발표하기 위해 내 것으로 만들어 이해하고 암기하다 보니 시험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p> <p>-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능력 증가</p> <p>-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느끼게 되어 직접 거리 조사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꼈다.</p> <p>-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료 활용의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p> <p>-다같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 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아서 정리했다.</p> <p>-하면서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았지만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서 개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p> <p>-재미있고 협동심 증가</p> <p>-지금은 모두 친해진 팀원들과 능동적인 수업태도로 PBL수업을 뿌듯하게 마치는 기분이다.</p> <p>-힘들다. 매우</p> <p>-뿌듯했다.</p> <p>-이론 과목에 비해 실제로 얻는 바가 많아 좋았다.</p>

<표 2> PBL 수업의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

이 수업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	이 수업에서 특별히 개선할 점
<p><능동적 학습> -자율학습 -학생의 직접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자기 주도적, 능동적,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볼 능력을 키움, 정보분별 능력을 키워줌</p> <p><전문지식 습득> -다양한 전공서적을 접했던 것 -다양한 책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이론을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학년의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의상학과 전공 책 말고 다양한 전공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의상 쪽보다 심리 쪽, 경제 등 여러 분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좋았다. -다양한 서적을 접하였고 정보수집능력도 많이 향상 될 수 있었다. -지식이 많아졌다.</p> <p><팀워크의 중요성> -새로운 사람들과 알아간다는 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을 기르는 점. -조별활동이라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조율하고 발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좋았다. -조원들과의 의견충돌 시 해결방안을 잘 알 수 있었다. 개인별이 아니라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었지만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열린 수업이라는 점에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한가지 주제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열린 수업의 매력이라고 생각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그냥 주입식보다 더 머리에 남을 것 같다. -조별 과제이다 보니 조원들끼리의 협력과 의견조율이 중요했는데 그러한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피드백이 좋았다. -주제에 관련하여 조원들끼리 머리 맞대서 결과 점을 찾아가고 그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 게 이 수업에 장점이 아닐까 생각된다.</p> <p><자기 주도적 학습>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수업이 PBL수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다. -문제해결강의라 좋음 -의상 심리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PBL수업이라서 좀 쉽게 다가 간 것 같다. -의상학과 학생으로써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발표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중심으로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무엇인가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나중엔 큰 이점으로 다가와서 보람찼다.</p> <p><피드백> -조별활동 후에 다른 조원들로부터 받는 피드백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듯하다. -동료 학생들이 평가 해 준 것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p> <p><창의적 수업 방식> -PBL 수업인 만큼 창의적인 수업이었다.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지만 그것이 PBL 수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접해본 PBL수업이라서 좋았다.</p>	<p><교수자의 피드백> -너무 빡빡한 일정과 부담감에 숨가쁘게 달렸던 게 조금 힘들었다. -교수님의 보다 많은 피드백 -동료 평가(Peer evaluation)의 강화</p> <p><정보 접근 성> -강의실에 개별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교실에서 인터넷이 잘 터지면 좋겠다.</p>

학습자들은 본인들이 속한 팀원들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가에 대해 교수자의 보다 많은 피드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론 시 다양한 매체의 접목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 활용을 위해 컴퓨터 등 기자재 관련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의상 학 관련 전공이론의 PBL 수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학습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학습으로 수동적인 수업을 받았을 때보다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PBL 의상사회심리학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92% (34명)의 학습자들이 PBL수업은 자신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75% (28명)의 학습자들이 다른 수업방법보다 PBL 수업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6% (28명)의 학습자들이 PBL 수업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63% (23명)의 학습자들이 수업은 공정하게 평가 되었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PBL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들은 기존의 이론 수업위주의 수업보다 PBL의 수업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자와 같은 학기 (2008학년도 1학기)에 국제마케팅, 여성 법, 광고 학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이 PBL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PBL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 들의 80%에 달하는 교수 자들이 PBL 수업은 일반강의보다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95%의 교수 자들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학생간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85% 교수 자들이 새로운 교수법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수자가 인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80%의 교수 자들이 수업진행을 위한 수업 준비의 부담감을 나타내었고, 55%의 교수 자들이 PBL 수업 모듈문제 개발의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90%의 교수 자들이 수업진행 절차가 복잡함을 나타내었으며, 80%의 교수 자들이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난이도 선정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5%의 교수자가 학생 평가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¹¹⁾.

V. 결 론

PBL 수업방식은 의상 학 전공이론 수업인 의상사회심리학 수업에 도입해 봄으로써 교수 자에게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탐험과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더불어 발표능력 향상, 더 나아가 팀원간의 적응능력 향상을 통하여 교수자, 학습자 모

<표 3> PBL 의상사회심리학 수업 만족도평가 (N=37)

문 항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긍정	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PBL 수업은 나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3% (1명)	5% (2명)	43% (16명)	49% (18명)	4.38	0.72
강의내용을 학습하는데 다른 수업방법보다 PBL 수업방법이 더 효과적 이었다고 생각한다.		5% (2명)	19% (7명)	43% (16명)	32% (12명)	4.03	0.87
PBL 수업을 통해 동료학생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1명)	8% (3명)	38% (14명)	51% (19명)	4.38	0.76
PBL 수업은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3% (1명)	32% (12명)	49% (18명)	14% (5명)	3.75	0.73
PBL 수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2% (8명)	57% (21명)	19% (7명)	3.86	0.92
나는 PBL 수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5% (2명)	19% (7명)	57% (21명)	19% (7명)	3.89	0.77

두에게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쌍방이 윈 윈 하는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PBL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교수자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경험해 봄으로써 일반강의 형식이 아닌 의상 학 전공이론 수업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의상 학 전공 관련 이론수업에 PBL 방식을 적용한 사례의 연구 논문은 미미하므로 이 논문을 통하여 의상 학 전공 과목수업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 함으로써 의상 학 전공수업에 PBL 방식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교수자에게 정보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도 하겠다. 또한 고도로 지식화, 정보화, 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교수자에게 다양한 교수법 접근으로 새로운 형태의 “teaching” 법을 학습자와 함께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의상 학 전공이론 수업의 PBL 접목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발표수업에 대한 부담감 해소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발표력에 자신감 고조, 둘째, 능동적 참여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자신감 고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의류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인 양 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문제해결에 있어 수동적 자세 보다는 능동적 자세의 인재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발표 중심의 수업 형태이므로 많은 수의 학생이 수강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PBL 수업을 운영하신 많은 교수 자들이 20명의 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책정하는바 참가인원의 제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포커스 그룹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의 PBL수업을 바라보는 여러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일반 수업형태의 의상 학 관련 전공이론강의와 PBL을 경험해본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일반 강

의 시 진도 위주로 지식 전달과 암기 위주의 필기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였다면, PBL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 손에 일반강의에 다루지 못하는 여러 권의 전공관련 서적과 본인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수동적 지식 습득에서 능동적 자기해결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1) Hmelo, C.E., Evensen, D. H. (2000), Introduction Problem-based learning: Gaining insights on learning interactions though multiple methods of inquiry. In D. H. Evensen, C.E.Hmelo (eds.), *Problem-based learning: A research perspective on learning interactions*, Mahwah, Nerawrence Erlbaum Associates. pp.1~16
- 2) 김호영 (1998), “학교교육 정보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방법에 의한 설계 및 적용”, 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6.
- 3) Duchy, F., Segers, M., Buehl, M. (1999), “The relation between assessment practices and outcomes of studies: the case of research on prior knowledg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9 (2), pp.145~186.
- 4) Barrows, H.S. (1996), Problem-based learning in medicine and beyond. In L. Wilkerson, W.H. Gijsselaers (eds.), *Bringing problem-based learning to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No. 68. San Francisco: Jossey Bass Inc. Publishers. pp.3~13
- 5) Gijsselaers, W. (1995), Perspectives on problem-based learning. In W. Gijsselaers, D. Tempelaar, P. Keizer, J. Blommaert, E. Bernard & H. Kasper (eds.), *Educational innovation in economics and business*

- administration: The case of problem-based learning*, Norwell, Mass.: Kluwer. pp.39~52.
- 6) Sage, S.M. (1996),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at the K-8 Level: Preliminary Finding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63-398).
 - 7) Barrows, H.S. (1986), "A taxonomy of problem-based learning methods". *Medical Education*, 20, pp.481~486.
 - 8) Duffy, T. M. (1997), *Strategic teaching framework: An Instructional model for learning complex, interactive skills*. In C.R. Dills & A. J. Romiszowski (eds), *Instructional development paradigms*. Englewood Cliff,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9) Cordeiro, P., Campbell, B. (1996), "Increasing the transfer of learning through Problem based learn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96-434).
 - 10) Dunlap, J.C. (2005),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Efficacy: How a Capstone Course Prepares Students for a Profess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3(1), pp. 65~85.
 - 11) 유평준 · 김수경(2009), "숙명 PBL 수업의 효과성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pp. 23~25.
 - 12) Honebein, R.C., Duffy, T.M., Fishman, B.J. (1993), Constructivism and the design of learning environments: Context and authentic activities for learning. In T. M. Duffy, J. Lowyck., & D.H. Jonassen (ed). *Design Environment for Constructive Learning*, NY: Springer-Verlag. pp.87~108.
 - 13) Gallagher, S. A., Stepien, W. J., Rosenthal, H. (1992), "The Effects of problem bas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Gifted Child Quarterly*, 36(4), pp.195~200.
 - 14) 박정환 · 우옥희 (1999), "PBL(Problem-Based Learning)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문제해결 과정에 미치는 효과", *교육공학 연구*, 15(3), pp.55~81.
 - 15) Tobin, K., Tippin, D. (1993), Constructivism as a referent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K. Tobin (ed). *The practice of constructivism in science education*, Washington, D. C. AAAS Press. pp.3~21.

접수일(2009년 5월 28일)

수정일(1차 : 2009년 6월 19일, 2차 : 7월 10일)

게재확정일(2009년 7월 13일)